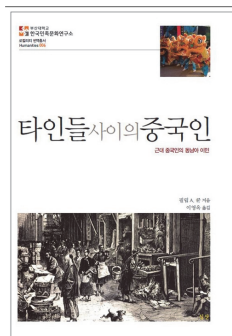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원제: Chinese Among Others: Emigration in Modern Times)

김종호*



필립 A. 쿤 지음, 이영옥 옮김
출판사: 심산
출판연도: 2014년
분량: 528쪽

I

국내에는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 - 1768년 중국을 뒤흔든 공포와 광기』(이영옥 옮김, 2004, 책과 함께), 『중국 현대국가의 기원』(윤성주 옮김, 2009,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잘 알려진 필립 쿤(Philip A. Kuhn, 1933~2016)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중국근대사 연구자이지만, 사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화교사 관련 강연과 연구를 진행한 화교사 연구자이기도 하다. 한국어 번역본의 ‘감사의 말’을 보면 2006년에는 한국에서도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화교사 연구를 위해 그가 동남아시아와 미국, 유럽을 다니면서 만난 관련 연구자들만 해도, 왕궁우, 린만홍, 폴 크라토스카, 레오 수르야디나타, 레오나드 블루제 등 이름만으로도 화교

* 金鐘湖.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e-mail: kimjongho@sogang.ac.kr

사 연구자의 최상층을 구성하는 이들로 가득하다. 윤성주의 표현처럼 ‘영원한 지식청년’으로서 그의 학자적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¹⁾

그의 오랜 화교사 연구활동의 종지부를 찍는 결과물로 나온 것이 *Chinese Among Others*(2008)였고, 그 한국어 번역본이 2014년에 나왔다.²⁾ 사실 그동안 화교·화인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서들이 출판되었지만, 필립 쿤의 저서처럼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중국인 이주사의 다양한 양상을 한 호흡에 담은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본 저서는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거의 500여 년간 이어진 중국인의 해외이주를 서술하면서 기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집대성함과 동시에 재구성,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한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니 국내 이민사, 중국사, 동남아시아사 관련 학계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관련 연구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일 것이다.

II. 본서의 구성과 특징

본서의 뼈대인 각 장은 중국인의 해외이주를 시기별로 다루고 있다. 1장은 이주의 배경으로써 유럽 이베리아 반도의 두 카톨릭 국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동남아시아 진출과 함께 시작된 명대의 해상팽창, 초기 중국인 이주의 구조, 이주민들의 분류, 정착한 사회에서의 공동체 구조 등에 대해 다루고(‘해상팽창과 중국인 이주’), 2장 ‘초기 식민제국들과 중국인 이주공동체’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초기 동남아시아 진

1) 윤성주. 2016, “영원한 지식청년, 필립 쿤(Philip Archibald Kuhn, 1933-2016)”, *중국근현대사연구 71집*.

2) 필립 A. 쿤. 지음, 이영옥 옮김. 2014,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 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심산.

출 유럽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중국인 이주공동체들이 맞이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환경과 적응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3장은 19세기와 아편전쟁으로 촉발된 본격적인 제국주의의 출현과 중국인의 본격적인 대량이주를 다룬다(‘제국주의와 대량이주’). 사실 현재 동남아시아 화교·화인들의 거의 직접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다. 4장과 5장의 경우에는 이 대량이주의 시기, 주요 무대가 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국인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그 구조, 내부적 갈등, 외부로부터의 도전 등을 통해 중국인 해외이주의 역사에서 가장 대량의 인구가 오고 간 시기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대량 이주 시기의 공동체들’).

6장 ‘혁명과 민족 구제’와 7장 ‘식민지 시대 이후 동남아시아의 중국인 공동체’는 제국주의 시기 말기, 2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동남아시아 점령, 그로 인한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의 몰락 등을 배경으로 공산주의, 민족주의 등 다양한 서구식 사상과 반제국주의·반중국 의식이 해외 중국인 공동체의 존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8장에서는 20세기 중후반 동남아시아의 여러 피식민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자체적인 국가를 건설함과 동시에 중국이 공산화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 시기를 무대로 기존 이주민들이 맞이한 도전과 더불어 중국의 팽창을 계기로 시작된 신이민에 대해 고찰하면서 본서를 마무리 짓는다. 각 장의 경우 시기별로 구분한 반면, 각 장 내부의 절은 주제별, 지역별로 적절히 나누어 서술한 구조를 보면 500여 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이어진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포함시키기 위한 저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문명 간 교류의 규모로 이루어진 중국인의 해외 이주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게다가 본 연구는 대다수 중국인이 이민을 간 지역인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 유럽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연구이다. 동남아시아 지역과 다른 지역의

이주를 함께 다룸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 유럽으로의 이주 양상이 드러나는 것은 19세기 이후이고, 그 분량 역시 동남아시아 케이스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이는 사실 동남아시아로 이주해 간 중국인들의 역사가 훨씬 길고, 그 숫자 역시 압도적으로 많기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본서의 부제가 원서와는 다르게 ‘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인 것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적절하게 들어간 사료들이 현장감을 심어주고 있는 점도 본서의 미덕이다. 각 절마다 적절하게 들어간 현지 관료들의 상유(上諭), 현지 여행가의 기록, 서구 관찰자들의 기록은 해당 시대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본서는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위주로 저술한 전공자의 본격적인 연구서라기보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재해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전체적 그림을 제시해 주는, 대가만이 할 수 있는 대중 교양서에 가까운 연구서다. 필자 역시 국내에서 관련 강의를 진행할 때 본 연구의 다양한 사료와 면밀한 서술의 도움을 받았을 정도로 훌륭한 교양서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저서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서평이 가능한 것은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화교·화인사를 재구성하는 가운데 돋보이는 역사학자로서의 통찰력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화교·화인사뿐 아니라 이민사 서술에 있어서 중요한 딜레마를 중국사학자인 저자의 관점으로 돌파하려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서’이다. 본 저서가 강조하고 있는 중국사 서술의 일환으로써 중국인 이주사 서술이라는, 이민사의 개념에서는 본국(Home country)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 후학인 필자에게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문제작’이기도 하다.

III. 쟁점들: 본국 중심 이민사 서술의 한계

아마 눈썰미가 있는 독자라면 본 저작이 때로는 은연중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징후들을 초기에 이미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영문 제목의 부제에 본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Emigration’을 사용함으로써 본국인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인 해외 이주의 역사를 다룰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서에서 다루는 중국인 해외 이주사 서술의 시작은 1567년인데, 이는 명(明) 제국이 사적인 해상무역을 금지한 기존의 해금(海禁)정책을 철폐함으로써 “사무역과 함께 이민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다(16쪽). 서술 시기의 설정 역시 철저히 중국사의 관점에서 세팅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인용된 유용한 자료들의 비중 역시 중국인들의 기록과 기억이 압도적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본 저서가 중국사학계의 대가인 저자가 중국사를 보다 넓게 이해하기 위해 저술한 교양서이자 연구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실 그러한 인식은 글 곳곳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해외의 중국인 이주민들과 그들의 고향인 교향(僑鄉)사이의 관계를 “연계”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두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노동분배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8쪽). 결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퍼져있는 해외거주 중국인 공동체들 역시 중국의 광역네트워크가 확장된 문명적 현상이라는 이해에 기반을 두고 서술된 저서인 것이다. 특히 역외 이주를 역내 이주의 시스템이 연장되는, 혹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중국의 역내 이주를 다루는 “연구들은 ‘연쇄 이주’의 ‘고리’를 구성하는 가족과 지역적 연결 관계 같은 익숙한 주제”를 다루는데(32쪽), 역외 이주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가구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기를 기반으로 문명 간 경계를 벗어난 지역 간 분

업,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사람과 자본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와 연계인식은 역외 이주 역시 중국 국내 가구 및 공동체의 확산이라는 저자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500년대 이후 중국의 근세, 근대, 현대사는 이들 해외거주 중국인들의 존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민이 빠진 중국사도 중국사가 빠진 이민도 적절한 연구방식이 아니라고” 단언함으로써 중국인 해외이주의 역사를 중국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8쪽).

그러한 관개로 본서에는 해외 중국인 이주민들의 역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편향된 시각 혹은 이주지역에 대한 무시가 곳곳에 보인다. 첫째, 우선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간 중국계 이주민들을 중국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 이들의 위치와 역할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서구 유럽국가들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현지 공동체나 정치체와의 상호 영향에 관해서는 서술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본 연구가 서구 세력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15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본격적인 서술이 시작되는 2장의 초기 식민지 사회구조 속에서의 화교·화인의 역할을 다룰 때부터 서구 제국으로부터 권위를 넘겨받은 화교·화인들이 유럽인들과 상업적 관계를 확장해가는 양상, 혹은 원주민인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신 관리하는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화교·화인의 존재를 철저히 서구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그 ‘유용성’에 집중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방식은 매우 전통적인 화교·화인사 서술 방식이다.

사실 서구 진출 이전에도 화교·화인들은 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미 10세기 이전부터 현지의 정치, 사회 공동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이슬람화한 중국인들, 중국화하는 자바인들 등 다양한 문명적 교류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자가 간과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화교·화인들의 현지사회와의 이른 접촉이 이후 유럽인들이 중국인들을 상업상의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였다. 심지어는 유럽인들이 진출한 이후에도 많은 화교·화인들이 유럽인들이 아닌, 현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1700년 푸젠(福建) 장저우(漳州)에서 자바섬의 수라바야 지역으로 이주한 한 시옹콩(Han Siong Kong 韓松公)은 그의 첫째 아들인 치엔콩(Tjien Kong 震公, 1720-1776)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현지의 자바여인과 결혼도 시켰다. 이렇게 이슬람화한 첫째는 이후 네덜란드가 바타비아를 거쳐 수라바야로 진출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현지세력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³⁾ 즉, 중국인들이 16세기 이후 유럽세력들의 주요 파트너로 그들의 식민지 구조에서 축의 역할을 한 것에는 상당 부분 그 이전 현지의 공동체에 충분히 적응했다는 사실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화제국과 서구 국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이들을 인식할 경우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본서의 “생태적 차이(Ecological differences)”는 서로 다른 생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중국인 이주민들의 삶과 사회적 구조를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실제 내용에서 생태적 환경으로 예시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분류에도 약간의 오류가 보인다. 특히 제국의 식민지 지역에 대한 이해에서 주로 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삶과 역할을 다루는데, 사실 1700년대 후반 산업혁명을 계기로 ‘제국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서구 국가들의 역할은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많은 중국인 이주민들이 상대한 생태적 환경으로서 지역권력은 서구 국가들뿐만 아니라 현지의 이슬람 술탄이 양적으로는 더 많았을 것이다. 현지인과의 혼혈을 의미하는 페라나칸(Peranakan) 사회가 탄생한 것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3) Claudine Salmon. 2009, “The Chinese Community of Surabaya, from its Origins to the 1930s Crisis”, *Chinese Southern Diaspora Studies*, Vol. 03.

이해할 수 있다. 이 역시 생태적 환경으로서 일부 지역의 동남아시아 역사를 서구 제국과 중국인 이주민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발생한 ‘농친’ 부분이다. 즉, 본서에서 저자가 중국인 이주민들의 주요 활동무대로 거론하는 ‘동남아시아’는 제국의 식민지, 혹은 화교·화인들과 유럽인들이 거래하여 부를 쌓는 저개발된 지역 정도로 타자화되어 출현할 뿐이라는 점이 아쉽다.

세 번째, 그러한 측면에서 후반부 주요 주제인 이주민으로서 화교·화인의 민족 개념 각성과 민족주의 형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영감을 주는 서술이었다(6장, 7장). 해외에 거주하는 이주민 소수자로서 동남아시아와 미국 및 호주의 중국인들이 하나의 단위로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된 것은 그들이 “비중국인 주민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비중국인 통치세력에 의해 통제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314쪽). 내부적 배타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특유의 지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비중국인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지역간 통합이라는 개념아래 하나의 공동체로서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중국 민족주의의 모자이크(351쪽)’라고 표현한 것처럼 해외 중국인 이주민 가운데에는 ‘민족주의’를 둘러싸고 생태적 상이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반응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같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룹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 세대 동안 동남아시아에 뿌리내린 페라나칸들의 경우에는 제국의 ‘이등시민’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중국문화라고 하는 세계적 문명의 유산(유교)을 동시에 활용하여 중국대륙과는 다른 그들만의 민족주의를 형성하였고, 반면 새로운 이주민들을 의미하는 ‘토틡(Totok)’들은 식민지 체제와 그들을 고용한 페라나칸, 그리고 반중적인 감정이 팽배한 현지인들로부터 다중의 억압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중국(혹은 외국) 국적이라는 피신처를 찾았고 교향의 끈을 통

해” 중국 본토와의 민족주의적 동화를 추구하였다(352쪽). 어쩌면 후자의 케이스가 해외 ‘중국인’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인식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거대 타이쿤(Tycoon 재벌)인 진가경(Tan Kah Kee 陳嘉庚)은 본서에서 묘사한 것처럼 푸젠과 샤먼(廈門)을 비롯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다만 진가경의 경우 국가 단위의 구체 활동을 통해 민족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지만, 이는 매우 드문 케이스로 대부분의 해외 중국계 기업가들은 그들의 상업과 정치적 활동을 완전히 별개로 두는 경향이 강했고, 본국에 관한 관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교향과의 연계로 그 범위가 매우 좁았다. 이처럼 저자는 분명하게 해외 중국인 공동체의 민족주의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그 다양한 사례들은 중국 근현대사의 연장으로 이들을 파악할 경우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서 후반부의 주요한 주제인 동남아시아의 반중국, 반화교 정서가 이 지역 중국인 공동체의 존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서술이 가진 한계다. 이미 노영순의 서평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20세기 중후반, 심지어 21세기까지도 동남아시아에 남아 있는 광범위한 반화교 정서는 동남아시아 국민국가의 배타성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시기 중국이 끊임없이 화교·화인들을 동남아시아 공산화의 침범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 또한 중국 사회주의 지도부가 화교·화인에 대해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⁴⁾ 두 배타적 국민국가의 틈바구니에서 동남아시아의 화교·화인들은 나름대로의 생존을 모색해야 했

4) 노영순. 2014,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근대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종호. 2020, “친공(親共)과 애국 사이-CIA 문서를 통해 본 냉전초 동남아 화교화인의 대중(對中)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85집 참조.

고, 그러한 양상들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중국사의 연장으로 인식한다는 저자의 관점에 동의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민사연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국을 중심으로 이민사를 서술하였을 경우 드러나는 편향된 시각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중국사 중심주의적 서술과 서구중심주의, 그리고 이주국인 동남아시아 지역사에 대한 이해의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민사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본국과 이주국을 동시에 살펴야 하고, 그 사이에서 경계에 걸쳐있는 이주민 그룹의 정체성과 공동체성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서평에서는 저자의 관점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중국사의 연장선에서 화교·화인사를 바라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역시 메울 수 있는 관점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 한다.

IV. 본국과 이주국 사이 이민사 서술의 딜레마: 남중국해 문명권 속 화교·화인 공동체

본 저서가 강조하고 있는 관점은 사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중국인 해외이주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사의 전개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자들은 당연히 중국사와의 연계, 혹은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방대한 화교·화인사의 일부일 뿐이라는 ‘합의’가 최근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화교·화인들의 케이스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터부시되던 디아스포라(Diaspora) 개념이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대안으로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⁵⁾

5) 이러한 화교화인사에 대한 논쟁들에 대해서는 김종호, 2017, “‘중화성’모색을 위한 시도들 — 서구권 및 동남아시아 지역 화교 화인 디아스포라 연구 경향 분석”, *중국근현대사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화교·화인사를 설명하기 위해 교향지역과 이주공동체 사이의 연계에 주목한 방향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디아스포라 개념이 화교·화인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념들이 잘 들어맞는 시기는 화교·화인 3·4세대가 주를 이루는 21세기일 것이기 때문에 - 실제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이 시기의 다양한 주제들(젠더, 계급, 세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 역사적 관점에서 근대 시기의 경우 보다 유용한 개념은 저자가 강조하는 그 ‘연계’에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저자가 강조하는 중국사의 연장 선상에서 파악하려는 관점이 간과하는 다양한 양상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역사서술, 특히 이민사 서술에서 현재 성립된 국가 간 경계설정을 과도하게 의식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일 것이다.

이민사 서술에서는 이러한 국가 간 경계설정을 과감하게 넘어서서 영역을 ‘상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히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역’과 ‘지역’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이주민 중심 문명 단위의 대상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여러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⁶⁾ 그러한 측면에서 필자 개인적으로 이들의 정체성이나 이들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에 보다 유용한 개념으로 ‘남중국해 문명권’을 하나로 묶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몇몇 연구들 사이에는 푸젠, 광둥(廣東),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의 지역, 즉 본서에서 명명한 “동남 해안 대구역”과 “링난 대구역”을 화북(華北), 화중(華中) 중심의 중국사 서술에서 따로 떼어내어 동남아시아

73집 참조.

- 6) Ma Guoqing. 2017, “Intra-regional social system: cases of the Maritime Silk Road around the South China Sea Rim”, *International Journal of Anthropology and Ethnology* 1:7; Derek Heng. 2013, “Trans-Regionalism and Economic Co-Dependency in the South China Sea: the Case of China and the Malay Region(tenth to fourteenth centuries AD)”,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35, No.3.

화교·화인 공동체와 함께 묶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즉,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권역은 화교·화인들의 교향을 주요 무대로 포함하면서도 화교·화인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여 서술하는 관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을 보다 사실에 가깝게 서술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전 세계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지역을 오간 중국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합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민사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본 저서는 장점만큼이나 한계 역시 뚜렷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관련 저서들을 집대성하여 재구성한 노학자의 연구적 열정과 순간순간 드러나는 중국인 해외 이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은 그러한 한계들을 순간 잊어버릴 만큼의 장대한 울림을 주었다. 개인적으로는 본서를 읽고, 서평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은 노쇠했을지라도 정신만은 학문적 호기심으로 번뜩였던 저자가 계속 생존해 있었다면 관련 후속연구는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게 될 만큼 지적인 자극을 주는 독서였다는 점에서 일독을 권한다.